

보도일시

2025. 05. 08. (목요일)

담당자

김명섭 공보팀장 010-6734-0770

E-mail

we.with.ks@gmail.com

김경수, “이재명 후보, 부산을 물류해양수도로 만들 것”

-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 참석
- 김 위원장, “유신독재 무너뜨린 부산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시작하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목)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부산시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민생, 안보, 외교할 것 없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규정짓고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지만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도 위기상황에 접어든 지 꽤 됐다”며 “기존 제조업은 쇠퇴해 가고 있고, 새로운 첨단 제조업은 아직까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고 부울경 지역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을 뒷받침할 유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 해양수도뿐만 공항과 철도, 항만을 함께 잇는 트라이포트 중심지로 북극항로와 연계해 동북아의 물류를 책임지는 물류수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부산을 비롯해 부울경을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또한 “부산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던 도시“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부산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시작“하자며 특히, “이번만큼은 반드시 50% 이상의 득표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산, 부울경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김영춘, 이재성, 차정인, 윤각열 부산시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호 골목골목선대위원장, 최인호, 변성완, 박성현, 서은숙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부산시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진행된 부산시당 선대위 위원장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경청노트 수여식’에 함께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하며 실천하는 선거운동을 캠프 관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끝/

<붙임1>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부산시당 선대위 출범회의 참석 사진



<붙임2>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부산시당 선대위 출범회의 인사말 전문

[붙임2]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 인사말 전문

○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층 회의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동안 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분들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부산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행사에 고문님들도 모셔서, 울산 선대위는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했는데, 민주당의 뿌리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오늘의 부산 민주당을 만들어왔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산 민주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경제, 민생, 안보, 외교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람.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해결사 누구니까? (이재명!)

국가적으로도 위기지만 우리 부산도 위기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도, 동남권도 이미 위기상황으로 접어든 지가 꽤 됐습니다. 기존 제조업은 쇠퇴해가고 있고, 새로운 첨단 제조업은 아직까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산업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야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4기 민주정부, 우리가 정권교체로 만들어낼 4기 민주정부는,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정당의 후보가, 그런 정당이 이런 거대한 전환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4기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역을 함께 살리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토 공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해양수도뿐만 아니라 물류수도, 그리고 공항과 철

도, 항만을 함께 잇는 그런 트라이포트의 중심지로써 동남권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전 세계의 물류를 책임져나가는, 그런 물류 허브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도가 되어야죠. 그런 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던 그 시작의 도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시작도,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던 이 부산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대위 출범식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이 분이 오신 것은 처음 봤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주셨는데, 아마도 부산을 반드시 해양수도로 만들고 우리 부울경을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유능한 일꾼에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하려면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표라도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부울경 지역도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상대후보를 압도하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기는 선거 한번 해 봅시다.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반드시 50% 이상의 득표로 다음 대통령이 힘있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부산, 부울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그런 대선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슬로건이 구호입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인 이재명! 지금인 이재명! 고맙습니다.